



정진민 세례자 요한
前 MBC교우회장, 가톨릭상담심리사

|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저는 결혼 적령기가 되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경구를 떠올리며 확실한 결혼관을 확립하고자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많은 글을 섭렵했습니다. 결론은 '연애와 결혼은 차원이 다르다'였으며, 이왕이면 '해보고 후회하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신봉감의 기본 조건들을 헤아리신 뒤, 선보러 오라고 하시면, 틈나는 주말마다 내려가 선을 보았는데, 열한 번째 선을 본 아가씨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흔히 말하는 '필'이 꽃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장소를 상의하는 중, 그녀의 가족 중 그녀만 가톨릭 신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쉬는 교우'였지요. 저는 비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성사'를 고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가 신자였으므로 아무도 제 주장에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올리고, 아들과 딸도 유아세례를 받게 하였지만, 그때까지도 세례를 미루면서 저는 아내를 따라 주일 미사에 가끔 가곤 하였으니, 그야말로 '사이비 비신자'였습니다.

돌이켜 보니, 아내를 통한 하느님의 부르심에도 저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3이던 딸의 사춘기에 대한 저의 불안감으로 저는 딸에게 '함께 교리 받고, 세례 받자'라고 제안하게 되었고, 딸도 흔쾌히 받아들여 결국 하느님의 부르심에 세

례를 받고, '예, 저는 믿습니다'라고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중책을 맡게 되자, 또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내가 갑상선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이고 예후가 좋은 증상이었지만, 아내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매달리며 필사적으로 피정과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저는 이때 또다시 하느님의 부르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중책도 내려놓게 되자, 저에게는 '한국 순교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생겼고, 틈틈이 관련 서적과 강의 등을 섭렵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불사한 선조들의 신앙심'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넘치는 사춘기 때 겪은 친구의 죽음이 엄청난 '절망과 허무'를 제게 안겨주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순교 선열'의 삶은 바로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신앙인으로서의 전형'이며, '그리스도의 영성'을 사모하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총임을 믿기에 앞으로의 제 삶은 감사와 찬미를 더 많이 드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무일도가 뭐죠?

성무일도(聖務日禱)는 거룩한 직무로서 일상에서 바치는 기도이며, '시간경'이라고도 합니다. 성무일도의 기원은 하루에 여러 번 하느님께 찬양을 올렸던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들도 이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동트는 시간을 아침 여섯 시로 하고, 이때부터 세 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새벽기도 등이 들어갑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는 간략하게 되어 아침, 점심, 저녁, 밤 기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